불/가능한 싱글 라이프*

-번역가능성과 번역불가능성 사이의 삶과 죽음-

권명아**

〈차례〉

1. 죽음과 생존을 묻다: 슬픔의 정치학과 공동체
2. 생존의 조건, 의미화의 조건: '페미니즘은 이제 그만(NO MORE FEMINISM)'과 '또 다른 페미니즘(another feminism)'의 사이에서
3. 번역될 수 없는 삶-문장: 국민작가와 '그 무엇'
4. 번역가능성과 번역불가능성 사이의 삶-죽음
5. 또 다른 페미니즘, 혹은 새로운 이론적 실천의 가능성을 꿈꾸며

〈국문초록〉

가족이나 동료 관계와 같은 보호고치가 없이, 홀로 차가운 방 속에서 소멸해가는 존재들이 있다. IMF, 고용 불안정, 양극화, 청년 실업, 사회복지의 축소, 새로운 파시즘의 도래 등 내세울 수 있는 이유들은 무수히 많다. 생존 불가능성의 사회적, 구조적 요인을 규명하는 글들은 이미 너무 많다. 따라서 이 글은 생존가능성과 불가능성의 경계에 대해 이와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접근해보고자 한다. 이글의 주안점은 첫째로는 싱글라이프의 기원과 귀착점, 그리고 그 젠더적인 차원에 대한 규명이다. 싱글 라이프라는 용어를 통해 이 글은 단지 독신이라는 삶의 방식만이 아니라, 삶의 방식의 특이성(singularity)과 작가로서의 존재 방식의 특이성의 문제를 함께 사유해보고자 한다. 후자의 문

* 이 논문은 동아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 동아대학교

제와 관련해서, 이 글에서는 특히 번역가-작가로서 여성 작가의 존재 방식의 문제를 함께 검토하고자 한다. 먼저 이 글에서는 여성이 싱글 라이프를 선택하는 것이 하나의 정치적 결단이었던 1980년대와 싱글 여성의 미래가 고작 "구호 대상"으로 간주되는 2011년의 낙차를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이 낙차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삶의 방식에 대한 선택과 결단의 정치적 함의와 이에 대한 이론화의 필요성을 논하고자 한다. 두 번째로는 이를 토대로, 싱글 라이프의 생존 불가능성이 단지 신자유주의적 구조하의 새로운 문제일 뿐 아니라, 번역가-작가라는 특정한 존재 방식과도 관련된 문제라는 점을 고찰할 것이다.

핵심어 : 싱글 라이프, 번역가능성, 번역불가능성, 번역가-작가, 특이성, 배수아, 공지영, 신경숙, 최승자, 최고은

1. 죽음과 생존을 묻다: 슬픔의 정치학과 공동체

1997년 IMF 경제 위기 이래 자살률의 급증과 출산율의 저하 등 한국 사회는 재생산 위기에 직면하였다.[1] 죽음과 생존이라는 화두는 이미 오래전부터 한국 사회가 직면한 문제였지만, 2009년 이후 용산 참사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살', 노동자 농민들의 잇단 자살과 분신 등이 이어지면서 죽음과 생존을 묻는 일은 한국 사회에서 정치적 주체화와 관련한 주요한 사안이 되었다. 물론 이는 한국 사회에 국한된 일은 아니다. 주디스 버틀러는 9.11 이후 미국 사회와 '서방'에서 진행되는 정동의 정치, 특히 슬픔, 애도, 상실의 문제를 통해 9.11 이후 '서구사회'의 정체성 정치를 비

1) 필자는 다른 글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즉 "자살과 출산 거부는 단지 만성적인 '사회 문제'가 아니라, 인간을 재생산 기계로 몰아온 한국 사회의 구조적 문제라는 점에서 고찰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가 한국 사회가 파시즘의 경험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채 지속적으로 파시즘적 사회 구조를 강화해온 과정에서 비롯되었다는 인식 또한 필요한 것이다.", 권명아, 「파시즘과 해방의 정치의 딜레마」, 『문화과학』, 2009년 여름호, 160쪽.

판적으로 논의한 바 있다.[2] 그런 점에서 죽음과 생존가능성(버틀러의 개념을 빌자면 survivability)에 대한 감각, 누군가의 죽음을 슬퍼할 만한 대상으로 간주하는가 아닌가(grievability)의 문제는 주체성의 문제를 넘어서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가 아닌가를 결정하는 주요한 심급이 되었다.[3] 필자는 최근 한국 사회에서 죽음과 생존에 대한 감각이 어떤 식으로 재구조화되었는지, 또 이와 관련하여 슬픔의 정동이 정치적 주체화와 탈정치화 사이에서 유동하는 역학 등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 왔다. 특히, 애도와 우정, 공동체에 관한 논의를 하면서 죽음과 생존에 대한 감각과 관련하여 필자는 다음과 같은 의제를 제시한 바 있다.

공동체에서 추방된 부당한 죽음을 애도하는 일은 이 부당한 죽음에 대한 책임을 묻고 답하는 일에 다름 아니다. 죽음을 묻는(埋葬/質問) 일은 생존을 묻는 일이기도 하다. 매장과 애도는 삶과 죽음을 묻는 일이다. 너의 죽음은 나에게 슬픔의 공감과, 우정의 연대를 서명하는 일만이 아니라 나의 생존, 그 익숙한 삶의 감각을 심문(審問)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너의 죽음은 나의 생존을 심문에 회부한다. 심문에 회부된 생존, 추방 명령을 받은 너의 죽음은, 이렇게 해서 나의 생존을 심문에 회부한다. 아니, '우리'는 나의 생존을 심문에 회부함으로써만 추방 명령을 받은 너와 함께 나란히 심판대에 서서, 위태롭게 함께 걸어갈 수 있을 것이다. 나는 그간의 논의에서 한국 사회에서 죽음에 대한 감응과 '애도'가 새로운 정치적 주체화를 위한 윤리를 구성하는 데 실패한 이유를 분석한 바 있다. 특히 한국사회에 만연한 슬픔에 대한 감응 방식이 피붙이적인 형식(육친적 형식)을 맴돌고 있는 측면에 대해서 비판적인 논의를 제기한 바

---

2) Judith Butler, *Precarious Life: The power of Mourning and Violence*, Verso: London and New York, 2004,: "Survivability, Vulnerability, affect", *Frames of War*, Verso: London • New York, 2009,

3) 이에 대해서는 권명아, 「죽음과 생존을 묻다: 애도, 우정, 공동체」,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자의 죽음: 용산에서 노무현 그리고 김대중까지 죽음과 기억의 정치학』, 당비의생각3, 산책자, 2009; 「맨몸의 숭고와 비판적 삶의 종말」, 『작가세계』, 2009년 가을호 참조.

있다.[4] 이 글은 이러한 연구의 연장에서 한국 사회에서 생존에 대한 감각과 죽음에 대한 감응이 여성의 삶의 방식, 특히 싱글 라이프에 대한 재현 관습과 페미니즘의 정치적 함의와 관련해서 어떻게 결합되고 변모되는지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2. 생존의 조건, 의미화의 조건: '페미니즘은 이제 그만(NO MORE FEMINISM)'과 '또 다른 페미니즘(another feminism)'의 사이에서

가족이나 동료 관계와 같은 보호고치가 없이, 홀로 차가운 방 속에서 소멸해가는 존재들이 있다. IMF, 고용 불안정, 양극화, 청년 실업, 사회복지의 축소, 새로운 파시즘의 도래 등 내세울 수 있는 이유들은 무수히 많다. 생존 불가능성의 사회적, 구조적 요인을 규명하는 글들은 이미 너무 많다. 따라서 이 글은 생존가능성과 불가능성의 경계에 대해 이와 조금 다른 차원에서 접근해 보고자 한다. 이글의 주안점은 첫째, 싱글라이프의 기원과 귀착점, 그리고 그 젠더적인 차원에 대한 규명이다. 먼저 이 글의 기본적인 문제의식에 대한 간략한 설명에서 시작하고자 한다. 싱글 라이프라는 용어를 통해 이 글은 단지 독신이라는 삶의 방식만이 아니라, 삶의 방식의 특이성(singularity)과 작가로서의 존재 방식의 특이성의 문제를 함께 사유해보고자 한다. 후자의 문제와 관련해서, 이 글은 번역가-작가로서 여성 작가의 존재 방식에 대한 예비적 고찰을 겸하고 있기도 하다. 학문장이나 문학계, 혹은 담론장에 안착하지 못한 채 이 '공동체'의

4) 권명아, 「죽음과 생존을 묻다: 애도, 우정, 공동체」, 앞의 글 참조. 대표적인 것이 신경숙의 □엄마를 부탁해□의 비평적, 대중적 성공이다. 독립영화 □워낭소리□의 이례적인 성공 역시 이러한 슬픔의 형식을 전형적으로 재연한다. 특히 이 두 작품은 한국인에게 매우 익숙하고 낯익은 '공동체성'에 대한 노스탤지어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맨몸의 숭고와 비판적 삶의 종말」, 앞의 글 참조.

문법에 의해 그녀들의 존재론적 특이성이 '부르주아적'이거나 '서구에 대한 동경'이라는 식으로 매도되고 규정된 전례의 하나는 전혜린이라 생각된다. 또 전혜린은 이러한 '오명'과 자신의 존재 방식을 인정하지 않는 공동체적 질서와의 불화를 번역가-작가라는 형식을 통해 타개해보려 시도한 대표적 사례이기도 하다. 이런 점에서 보자면, 조금 다른 차원에서 나혜석 역시 번역가-작가로서 여성 작가의 위태로운 생존 방식의 역사적 기원으로 설정될 수 있을 것이다. 나혜석의 에세이들을 번역으로 볼 것인가는 논란의 소지가 있지만, 이른바 '서구적인' 여성의 삶과 공동체적인 질서가 요구하는 여성의 삶 사이의 불가능한 틈새를 양자 사이의 '번역'을 통해서 매개해보려는 시도가 그녀의 에세이들의 중요한 특성이 아닐까 생각된다. 공동체의 문법으로 번역 불가능한 여성의 존재 방식을 '된 장녀'로 규명하는 관습은 그런 점에서 아주 오래된 기원을 내포하고 있다. 번역가-작가로서 여성 작가의 존재 방식에 대해서는 이 글에서는 온전하게 규명하지는 못했다. 이 문제는 다른 글을 통해서 더 진전된 논의를 하고자 한다.[5)]

먼저 이 글에서는 여성이 싱글 라이프를 선택하는 것이 하나의 정치적 결단이었던 1980년대와 싱글 여성의 미래가 고작 "구호 대상"으로 간주되는 2011년의 낙차를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이 낙차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삶의 방식에 대한 선택과 결단의 정치적 함의와 이에 대한 이론화

5) 이 번역불가능성의 문제를 사유함에 있어서 나는 자크 데리다가 파울 첼란에 대해 번역가-시인이라는 존재 양태의 특이성을 다룬 방식을 염두에 두고 있다. 데리다는 파울 첼란의 시의 특징을 언어의 다수성(multiplicity)과 이주성(migration)이라고 논한다. 데리다는 이를 통해 파울 첼란의 시는 집이나 고국, 고향에 정착하는 삶이 아닌 "시적으로 거주하기"라는 존재 방식의 특이성을 보여준다고 논한다. 즉 "언어의 다수성과 이주성 속에서 거주한다는 것"이 바로 그것인데, 이러한 '머묾'은 정주하지 않은 채 "시적인 것 속에 머무는 삶(dwelling poetically)이라는 존재의 특이성을 번역가-시인(translater-poets), 혹은 번역가-철학자(translator-philosopher)로서의 파울 첼란의 주체 위치와 연결된다. Jacques Derrida, "Language is never owned", *Sovereignties in Question: The Poetics of Paul Celan*, Fordham University Press, New York, 2005, pp.99~101.

의 필요성을 논하고자 한다. 두 번째로는 이를 토대로, 싱글 라이프의 생존 불가능성이 단지 신자유주의적 구조 하의 새로운 문제일 뿐 아니라, 존재 방식의 번역가능성과 불가능성과도 관련된 문제라는 점을 고찰할 것이다.[6] 이때 존재방식이란, 라이프 스타일과 같은 삶의 방식이나, 문학장, 영화계와 같은 제도 속에서의 관계 맺음의 방식, 혹은 작가나 예술가로서의 이른바 대사회적 관계들, 동료 네트워크와의 연계의 방식 등을 모두 아우른다. 예를 들어 문단의 중견임에 이의가 없는 시인 최승자는 등단 이래 단 한번의 문학상도 받은 적이 없다. 아니 이른바 문학계에서 그녀를 수상자로 선정한 적이 없다고 고쳐 쓰는 게 옳을 것이다. 그녀의 투병 소식이 알려진 이후에야 대산문학상과 지리산 문학상이 주어졌다. 그

6) 법과 의미화를 통한 주체 위치의 구성과 생산에서 번역가능성과 번역불가능성의 문제를 해명하는 것은 필자가 정념과 풍기문란의 문제를 통해 고민하고 있는 연구 주제이다. 필자는 기존의 풍기문란과 정념에 관한 연구를 통해서 풍기문란 통제를 정념(passion)과 주체 위치의 구성이라는 문제틀로 접근해 왔다. 이러한 연구 방법은 정념에 대한 연구의 최근의 이론적 논의들과도 연계된다. 즉 스피노자의 이론에 대한 재해석을 통해서 정념은 단지 이성에 의한 억압된 감성을 복원한다던가, 혹은 감정의 고유한 역학을 규명하는 차원이 아니라, 주체화의 심급으로 설정된 바 있다. 정념과 공동체에 관한 질 들뢰즈의 연구나, 비물질 노동과 정동에 관한 안토니오 네그리의 연구, 그리고 9.11 이후 슬픔과 주체화의 관계에 대한 주디스 버틀러의 비판적 성찰 등은 정념을 주체화의 문제로 다루고 있는 대표적인 경향의 하나이다. 이러한 이론적 맥락을 토대로 본 연구는 정념의 배분이 자본의 분배와 계급/인종/젠더의 분할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관점을 취하고 있다. 또한 이 문제는 정념의 번역 가능성과 번역 불가능성이라는 차원과 관련된다. 즉 풍기문란이라는 규정은 다음과 같은 축을 진동하면서 번역가능성과 번역불가능성의 문턱을 구성한다. 영혼의 불안(이는 정념의 어원적 의미이다.)으로부터 이성의 언어로의 번역가능성과 번역불가능성, '거리 여성'의 무질서한 문란함과 현모양처의 '교양' 사이의 번역가능성과 불가능성, 또 식민지의 무지몽매와 근대의 계몽의 빛 사이의 번역가능성과 불가능성 사이의 문턱 말이다. 이러한 이론적 맥락을 염두에 두면서 필자는 최근 발표한 논문에서 정념의 배분과 주체 위치의 구성을 번역가능성과 번역불가능성이라는 의제를 통해 규명해 보았다. 이 논문에서 필자는 이러한 문제들을 식민지 조선에서 에밀 졸라의 □나나□라는 텍스트의 번역가능성과 불가능성이라는 '문란한 사례'를 통해 규명해보았다. 이에 대해서는 권명아, "Coloniality, obscenity and Zola", AIZEN, Annual international conference, 2011년 10월 부산대학교 발표문 참조.

녀는 문학장의 구성원들과 '동료' 관계가 전혀 없이, 번역료로 생계를 유지했다. 문학장에서의 '동료 없음', 혹은 그녀에 대한 '동료애적 배려'의 부재는 그녀의 싱글 라이프라는 힘든 노동을 더욱 험난하게 만든 조건이라고도 할 것이다.[7]

이 글은 다양한 계급의 여성들의 삶에 대해서는 다루지 못했다. 오히려 특정한 계급의 여성들, 특히 이른바 한때 성과 지식의 권력을 획득한 적이 있고, 그렇게 간주된 지식인, 혹은 문화예술 종사자 여성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에 한정하였다. 이 계급 여성들은 삶의 양식에 대한 선택과 결단을 통해 페미니즘적인 실천의 중요한 바탕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그녀들의 새로운 삶의 방식은 손쉽게 '부르주아적' 삶으로 매도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매도의 방식이 오늘날, 이 특수한 여성 집단의 삶이 하나의 정치적 실천으로서보다는 종말론적 형식으로 구경거리가 되어버린 사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 이 글의 기본적인 문제의식이기도 하다.

오늘날엔 거의 망각된 사실이지만, 여성들에게 싱글 라이프가 하나의 정치적 실천이자 결단이었던 적이 있다. 특히 1980년대 말에서 1990년대 사이에 20~30대를 보낸 여성들에게 싱글 라이프를 선택한다는 것은 명백한 결단의 행위였다. 최영미의 「서른, 잔치는 끝났다」는 싱글 라이프가 하나의 결단이 되는 상황을 명료하게 보여주는 텍스트이다. 최영미[8]의 시와 최승자[9]의 시가 상징적으로 보여주듯이 싱글 라이프를 선택하는 행

7) 2010년 투병 중에 지리산 문학상을 수상한 최승자는 한 인터뷰에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 직접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예전엔 여성 시인에게 상을 잘 안줬어요. 80년대 이성복 황지우 박남철 김혜순 시인 등과 더불어 '해체파'라고 불렸는데, 그 중에서도 남자 시인들만 상을 받았거든.(그러고 보니 최씨와 같은 해에 등단한 김혜순 시인도 1997년에야 첫 상을 받았다) 또 내가 문단이나 학계에서 별로 활동 안하고, 혼자서 조용히 번역만 하고 지낸 탓도 있겠죠. 서운했냐고? 글쎄, 별로 그렇진 않은데." 「등단 31년 만에 첫 문학상 수상한 최승자 시인」, 이훈성 기자, 「한국일보」 2010년 8월 29일자.

8) 최영미, 「서른, 잔치는 끝났다」 창작과비평사, 1994.

9) 어느 빛 밝은 아침/잠실 독신자 아파트 방에/한 여자의 시체가 누워 있다./식은 몸뚱어리로부터/한때 뜨거웠던 숨결/한때 빛났던 꿈결이/꾸륵꾸륵 새어나오고/세상을 향한 영원한 부끄러움,/그녀의 맨발 한 짝이/이불 밖으로 미안한 듯 빠져나와

위는 새로운 삶에 대한 열정이라는 점에서, 페미니즘을 추동하는 에로스였다 할 것이다. 흑인 페미니스트 벨 훅스도 지적하다시피 에로스는 "모든 삶의 형태를 단지 가능성만을 지닌 상태에서 실제로 존재하는 상태로 발전하도록 추진하는 동력"[10]이다. 그런 점에서 싱글 라이프를 선택하는 일은 여성의 삶에 대한 새로운 열정의 한 표현이자, 새로운 삶을 가능케 하는 에로스였다 할 것이다. 한국에서 싱글 라이프를 선택했던 여성들은 어떤 길잡이도 역할 모델도 없이 "죽지 않고 살기 위해" 자기 스스로 삶의 지혜를 배워나가야 했다. 한국 사회에서 싱글 라이프란 혼자 감당해야 하는 "힘든 노동"이었다.[11]

싱글 라이프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나눌 수 있는 장이 부재한 상태에서 1990년대 이후 싱글 라이프는 문화산업의 새로운 개척지가 되기도 했다. 그 대표적인 예는 두말 할 것 없이 □섹스 앤 더 씨티□[12]라 할 것이다. □섹스 앤 더 씨티□의 성공과 '종말'은 싱글 라이프와 여성의 삶의 방식, 그리고 페미니즘적인 실천과 에로스와 관련된 변화의 지형, 혹은 딜레마의 일단을 보여준다. □섹스 앤 더 씨티□의 이러한 변신과 종말은 여성의 싱글 라이프를 둘러싼 이중의 역설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이중의 역설이란 한편에서는 싱글 라이프를 선택했던 여성들의 삶의 방식이 제도화의 길을 걷거나, 자기모순에 빠져버린 현실, 그리고 이에 따라 여성의 싱글 라이프라는 것이 더 이상 정치적 함의를 갖지 못하게

있다./산발한 머리카락으로부터/희푸른 희푸른 연기가/자욱이 피어오르고/일찌기 절망의 골수분자였던/그녀의 뇌 세포가 방바닥에/흥건하게 쏟아져 나와/구더기처럼 꿈틀거린다. 최승자, 「어느 여인의 종말」, □이 時代의 사랑□, 문학과지성사, 1981, 32쪽.

10) 벨 훅스, 윤은진 옮김, □경계 넘기를 가르치기□, 모티브 북, 2008, 230쪽.

11) 뜨거운/순대국밥을 먹어본 사람은 알지/혼자라는 건/실비집 식탁에 둘러앉은 굶주린 사내들과 눈을 마주치지 않고 식사를 끝내는 것만큼 힘든 노동이라는 걸//고개 숙이고/순대국밥을 먹어본 사람은 알지/들키지 않게 고독을 넘기는 법을/소리를 내면 안돼/수저를 떨어뜨려도 안돼// 서둘러/순대국밥을 먹어본 사람은 알지/허기 질수록 달래가며 삼켜야 한다는 걸/체하지 않으려면/안전한 저녁을 보내려면, 최영미, 「혼자라는 건」, □서른, 잔치는 끝났다□, 앞의 책, 15쪽.

12) □섹스 앤 더 씨티□시즌 1이 제작된 것이 1998년이다.

된 점과 관련된다. □섹스 앤 더 씨티□시즌 내내 싱글 라이프와 글 쓰는 여성의 위태로운 삶에 대해 과잉된 담론들은 넘쳐나지만, 막상 그 속에 아마추어/프리랜서인 그녀들의 생존에 관한 이야기는 사라져버렸다. 그리고 그렇게 실종되었던 그녀들의 이야기는 유서와 "부고"의 형식으로만 간간히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다.[13] 유서와 부고의 형식으로 전해지는 그녀들의 '싱글 라이프'의 결말은 어떤 정치적 함의도 지니지 못한 채, 조의를 표할 대상으로서, 사회적 구호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 '불우한 이웃'의 초상으로 우리 앞에 놓여 있다.[14]

---

13) 여기서 우리는 최고은의 유서를 둘러싼 과잉된 해석과 반응들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최고은, 시나리오 작가, 1979~2011.1). 한예종을 졸업하여 시나리오 작가로 활동하던 중 병과 생활고, 우울증으로 사망하였다. 그녀가 죽기 전 남긴 유서와 쪽지 등이 공개되어, 비정규직 문화예술 종사자들의 빈곤과 고립 상태, 사회적 안전망의 부재 등에 대한 이슈가 전사회적으로 제기되었다. 전문 시나리오 작가였고, 5편의 시나리오를 영화사에 이미 판매한 상태였으나, 원고료를 지급받지 못했고 사망 직전까지도 받지 못한 원고료를 기다리며 끼니를 해결할 돈도 없이 생활고에 시달렸다. 비정규직 문화예술 종사자들의 최소한의 생존을 국가가 보장하도록 요구하는 복지법안에 "최고은법"이라는 이름이 붙여지기도 하였다. 이 법안은 2011년 10월 28일 33대 국회에서 통과되었으나, 예술인에 대한 산재보험만이 포함되었고, 애초에 포함되었던 실업 보험 혜택은 배제되었다. 한국의 경우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화예술인 종사자는 2009년 현재 18만명으로 추산되며, 이 가운데 월평균 수입이 없는 경우가 37.4%에 이른다. 이를 포함해 100만원 이하 월급을 받는 예술인은 63%로 경제적 여건과 사회 안전망이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최고은씨가 졸업한 한예종은 음악원·연극원·영상원·미술원·무용원·전통예술원 등 6개 분원에 3,000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는 예술실기 전문 교육기관이다. 2011년에만도 한예종 학생들이 몇 달 사이 5명이 연속 자살하는 등의 일들이 연속적으로 벌어지면서, 예술계 종사자들 및 지망생들의 암담한 현실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2011년 10월 6일에는 자살한 학생들을 위한 추도식이 열리기도 했다. "한예종 총학생회와 학생, 교수 등 100명은 지난 6일 서울 성북구 석관동 캠퍼스에서 추도식을 열고 숨진 학생들을 애도했다. 이들은 애도문에서 "그들 각자의 슬픔과 우울로 돌리기엔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라며 "우리 모두가 그들의 죽음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 학생, 교수, 학교가 모여 의견을 모으고 해법을 나누는 지혜가 절실하다"고 했다." 「예술가의 불안한 미래였나… 한예종 학생 잇따라 자살」, 2011년 10월 8일 CBS 노컷뉴스.

14) 최근 맥도널드 할머니라를 별칭으로 인터넷에 회자되는 권화자씨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권하자. 그녀의 삶은 2011년 8월 24일 SBS □당신이 궁금한 이야기□라는

'된장녀'라는 새로운 호칭의 등장이 상징하듯이 새로운 삶의 방식 대한 여성들(특히 20~30대 여성)의 갈망은 글로벌 자본의 '소비자'의 아둔함으로 손쉽게 치부되어 버린다. '맥도널드 할머니'라는 별칭은 그런 점에서 새로운 삶의 방식에 대한 여성의 열망이 한국 사회에서 '외래적인 것'(글로벌 자본의 함의로든 'made in USA'의 함의로든)에 대한 맹목적인 추종으로 간주되어 버리는 경향을 전형적으로 보여준다. 흥미로운 것은 된장녀, 맥도널드 할머니, 혹은 구호 대상자라는 이질적인 차원으로 재현됨에도 불구하고, 실상 여성의 싱글 라이프나, 새로운 삶에 대한 동경은 이제 한국 사회에서 '익숙한 공동체성의 파괴자'라는 함의를 지니게 된 것이다. 여성의 싱글 라이프는 정치적 결단이나 실천이라는 정치적 차원이 아니라, 익숙한 공동체성의 문법으로 환수되고 있는 것이다.[15] 또한 이러

프로그램에서 취재한 후 온 국민의 "관심거리"가 되었다. 한국외대 불문과를 졸업한 '재원'이고 1976년에서 1991년까지 외무부에서 근무한 그녀는 퇴직 후 가족이나 친구도 없이 홀로 독신으로 거리 생활을 하고 있다. 끼니를 때우지 못하면서도 맥도널드에서 꼭 하루 한잔씩 커피를 마시고 24시간 영업을 하는 맥도널드와 같은 패스트푸드점에서 앉아서 밤을 지새운다 해서 "맥도널드 할머니"라는 별칭을 얻게 되었다. 인터넷에는 그녀를 '도촬'한 사진들이 여기저기 전시되어 있다. 끼니도 때우지 못하는 홈리스이면서 매일 커피를 마신다 해서 "된장녀"로 치부되고, 최근에는 그녀를 도와주려는 가수의 '성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여 비난을 받기도 하였다.

15) 필자는 앞서 소개한 글에서 한국 사회에서 죽음에 대한 감응과 애도가 "피붙이적 형식"을 반복하는 것은 한국인들에게 만연한 상실감이 익숙한 공동체성을 정상화하려는 열망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즉 문제는 죽음에 대해 감응하지 못하는 무감각이 아니라, 바로 감응의 차별적이고 선택적인 형식에 있다고 할 것이다. 즉 애도가 왜 새로운 정치적 주체화에 이르지 못하는가를 성찰하기 위해서는 왜 죽음에 대한 감응(respond)이 책임이라는 윤리의 자리를 만들기보다, 공동체의 익숙한 삶을 정상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는지를 물어야 할 것이다. 죽음에 대한 감응과 애도는 실상 죽은 자의 목소리를 재현하는 일을 자신의 역할로 자임하는 여러 행위 주체들이나 영매를 자임하는 행위 주체들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 중이다. 애착의 대상을 상실한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다양한 치유 산업들이나, 슬픔과 상실감에 적극적으로 호소하는 문화 생산자들과 이 문화 생산물을 문학이나 예술의 가치라는 이름으로 해석하고 승인하는 다양한 해석 공동체들이 죽음을 전하는, 죽은 자의 목소리에 감응할 것을 요구하는 영매나 애도 주체의 자리를 앞 다투어 차지하고 있다. 애도를 통한 정치적 주체화의 자리, 혹은

한 현상은 정치적인 것에 대한 태도 변화와도 무관하지 않다. 현재 한국 사회는 정치적인 것을 둘러싼 격변의 와중에 있다. 87년 체제나, 민중주의 등은 정치적인 것의 과거형으로 '청산'되는 중이며, 새로운 정치 세력화에 대한 갈망과 대안 부재에 대한 환멸, 기존 정치 세력에 대한 불신 등이 이 격변에 새겨져 있다.[16] 페미니즘 또한 이러한 정치적인 것의 과거형으로 간주된다. 물론 정치적인 것의 지형과 그 담지자는 지속적으로 변화된다. 다른 정치적 주체와 마찬가지로 페미니즘 역시 내부적 한계와 제도화[17]에 의해 한갓된 관료주의의 슬로건처럼 치부된다. 새로운 정치

정치적 삶에 대한 애도는 실상 이 다양한 영매들과의 갈등과 경쟁, 도전과 응전을 통해 가까스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권명아, 「죽음과 생존을 묻다: 애도, 우정, 공동체」, 앞의 글 참조.

16) 이른바 민주화 이후 10년의 세월이 지난 후 한국 사회의 심성 구조는 정치적인 것에 대한 인식의 지각변동을 겪고 있다. 나는 다른 글에서 이 지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한 바 있다. "민주화는 이미 낡은 경험이 되었고, 증폭되는 세계 경제 위기 속에서 한국의 지위에 대한 불안감은 격화되고, 본질적으로 이 속에서 개인들의 경제적, 존재론적 위기감은 폭발 직전까지 팽배해 있다. 파시즘은 이러한 위기감 특히 약자의 손상된 지위에 각인된 존재론적 불안을 먹고 탄생한다. 파시즘이 약자의 사상이었던 이유 또한 이와 관련이 깊다. 약자라는 인식, 약자의 피해 의식은 경쟁 구조와 생존 논리를 자기 정당화의 기제로 작동시킨다. 파시즘이 현존하는 모든 것에 대한 안티 테제로 자신을 정립할 수 있었던 것은,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페미니즘과 반페미니즘, 진보와 보수 등등 현존하는 이념에 대한 대중의 만연한 환멸과 피로감에 안티테제적 호소가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즉 이러한 경향들 말이다. 진보와 보수, 한겨레와 조중동, 민주와 반민주에 대해서 "이것도 저것도 다 망조다"라거나, "이것도 저것도 다 마찬가지다"라는 대중적 피로감과 환멸의 만연과 같은 현상이 그것이다. 한국 사회에서 이러한 피로감과 환멸은 이른바 민주화 이후, "잃어버린 10년" 등과 같은 수사에서 징후적으로 드러난다. 예를 들면 이른바 참여정부나 국민의 정부라고 불린 '민주화 시기'에 한겨레와 조선일보 둘 다를 보면서 자기 나름의 시각의 '균형'을 잡는다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렇게 균형을 잡으려는 태도가 한겨레도 조중동도 '편파적'이기는 매한가지라는 심성구조로 변화되었다. 또 무엇보다 진보도 보수도 " 다 거기서 거기"이고, 노무현도 이명박도 "다 그게 그거"라는 심리가 사회에 만연해 있다. **페미니즘은 문화 상품으로서도 매력을 잃은 지 오래고,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반페미니즘에 적극적으로 동의하지도 않는다. 다만 페미니즘이라는 말 자체가 '지겨울' 뿐이다.**", 이에 대해서는 권명아, 「파시즘과 해방의 정치의 딜레마」, 앞의 글 참조.

적 삶의 부재와 페미니즘의 관료화, 제도화 현상이라는 갈등적 상황 속에서 페미니즘은 이제 '불필요한 것'처럼 간주된다. 그런 점에서 한국에서 페미니즘은 '페미니즘은 그만(NO MORE FEMINISM)'의 집단 정서와 '또 다른 페미니즘(another feminism)'을 향한 미력한 시도들 사이에서 공전하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이러한 페미니즘의 공회전 속에서 여성들, 특히 익숙한 공동체의 보호고치에서 배제된 여성들의 삶은 더욱 위태롭게 허공에 매달려 있다. 페미니즘이라는 이름을 계속 사용하던 아니던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페미니즘이 그간 한국 사회에서 새로운 삶을 시도하고 실천하려는 여성들에게 자기 해명의 언어와 이론을 제공한 것이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이제 '페미니즘'이라는 이름이 허공에서 공전한다는 것은, 여성들이 자신의 삶을 해명할 정치적인 언어를 상실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많은 여성들이 자신의 삶을 해명할 언어를 잃거나 찾지 못한 채, 공동체(가족, 학문장, 사회 등)의 '문제거리'나 '구호대상'으로 전락해가고 있는 것 또한 이러한 '언어'의 부재와도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그런 점에서 오늘날 싱글 라이프라는 어떤 삶의 방식은 정치적 실천과 익숙한 공동체성의 복원, 제도화라는 지층들 속에서 어렵게 수행되고 있다. 이 수행은 과연 어떤 것일까? 이에 대해 신경숙, 공지영, 그리고 배수아라는 세 작가의 행로를 통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자.

3. 번역될 수 없는 삶-문장: 국민작가와 '그 무엇'

배수아, 신경숙, 공지영, 그녀들의 현재 도착 지점은 너무도 상이하다. 그러나 그녀들의 출발은 그렇게 상이하지 않았다. 『푸른 사과가 있던 국도』,[18]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19]나 『풍금이 있던 자리』[20]처럼 결

17) 여성 가족부가 취하고 있는 여러 정책과 태도들이 한갓 '웃음거리'로 전락한 현실도 이러한 반페미니즘적 정서를 강화시키고 있다. 페미니스트 출신 관료의 대거 등장은 페미니즘이라는 것을 여성가족부 관료와 등가로 만들어버렸다.

혼과 가족 관계와 같은 한국 사회의 일반적이고 공통적인 이해관계와 갈등하고, 이에 대해 도전하는 여성들의 이야기,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도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나아가길 선택하는 여성들의 이야기가 이 세 작가의 공통된 작가적 출발점이었다. 또 이 세 작가의 작가적 출발이 여성들이 싱글 라이프를 선택하는 결단을 하나의 사건적인 것으로서 표명하는 데서 시작했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그녀들의 현재의 도착점의 차이는 매우 흥미롭다.

물론 이 '사건적인 것'이라는 함의에는 설명이 필요하다. 공지영의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는 새로운 삶의 방식에 대한 여성들의 고민을 천착하면서 싱글 라이프를 선택하는 것을 일종의 결단으로서 '선언적'으로 제시했다 할 수 있다. 최영미의 『서른 잔치는 끝났다』 역시 이러한 선언, 즉 마니페스토적 형식으로 제출된 실천의 전형적 형식이라 할 것이다. 이와 달리 배수아의 『푸른 사과가 있던 국도』와 신경숙의 『풍금이 있던 자리』는 기존의 익숙한 공동체적 관습 속의 여성의 삶과, 새로운 삶에 대한 희구와 그 미래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이에 따른 주체의 분열이 작품들 속에 전형적으로 투영되어 있다. 1990년대 여성 작가들의 소설이 이처럼 새로운 삶의 형식에 대한 마니페스토적 선언과, 오래된 공동체적 관습과 새로운 삶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분열이라는 두 차원에서 진자운동을 펼친 것 또한 사실이다. 이 세 작가의 출발점이 여성의 싱글 라이프에 대한 결단을 둘러싼 맥락에 있었다는 점은 이러한 측면과 관련된다.

즉 싱글 라이프라는 것이 기존의 익숙한 공동체적 삶의 관습에서 요구

18) 배수아, 『푸른사과가 있던 국도』, 고려원, 1995.
19) 공지영,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문예마당, 1993.
20) 신경숙, 『풍금이 있던 자리』, 문학과지성사, 1993. 『풍금이 있던 자리』에 실린 소설들은 말줄임표의 잦은 사용과 문장의 해체, 표현되지 않는 속내말의 반복 등으로 가독성이 떨어지는 소설로 간주되기도 했다. 그리고 이러한 문체가 재현될 수 없는 여성의 존재성에 상응하는 글쓰기 방식으로 논의되기도 했다. 『풍금이 있던 자리』의 이러한 문체를 『엄마를 부탁해』의 가독성 높은 문체와 비교해서 생각해볼 때, 그녀의 글쓰기의 변화는 대중성을 획득하는 과정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되는 여성의 삶과는 다른, 새로운 여성의 삶의 선택지로 부상되었던 시점의 불안과 결단이 그녀들의 글쓰기의 시원에 놓여있다는 것이다. 배수아의 「푸른 사과가 있던 국도」에서 인상적으로 묘파되듯이, 1990년대 여성의 삶에 대한 불안은 먼지 날리는 국도변에서 누런 종이봉투를 뒤집어쓴 채 조그만 사과 박스 앞에 웅크리고 앉아 있는 늙은 노파와 그 먼지를 뒤로 하고, 낯모르는 남자 아이의 스포츠카에 몸을 얹은 채, 그 길을 달려가는 여자 아이라는 두 표상 사이를 맴돌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과거로부터 결별하였으나, 미래의 삶의 형식을 찾지 못한 채, 불안정한 현재에 몸을 맡기고 일단 길을 떠나는 것, 그것이 1980년대 말에서 1990년대 초반, 여성들의 새로운 삶에 대한 결단이라는 것이 놓여있는 실제적인 형태였다. 또 '푸른 사과가 있던 국도'의 상징은 싱글 라이프에 대한 선택이 빈곤에 대한 공포와, 홀로 늙어가는 미래에 대한 암울한 전망과 겹쳐져 있던 당시의 상황을 함축적으로 보여준다.[21]

---

21) 배수아가 이후 작품에서 빈곤, 아니 빈곤에 대한 공포를 탐구하게 되는 경로 또한 이러한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배수아의 「일요일 스키야키 식당」은 그런 점에서 새로운 삶의 형태가 그 윤곽을 잡지 못한 채, 빈곤에 대한 공포와 생존에 대한 불안감에 영혼을 잠식당한 한국 사회의 리얼리티를 매우 날카롭게 묘파한 작품이다. 「일요일 스키야키 식당」은 빈곤, 혹은 빈곤에 대한 공포를 통해서 한국 사회에서 공동체성의 문제를 탐색한 작품이기도 하다. 빈곤에 대한 여러 인격체의 형태를 관찰하고 비교하는 이 작품에서 이 종결될 수 없는 빈곤에 대한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빈곤과 공동체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도 하다. "그들이 당장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굶주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아이들이 이제 이 사회에서 더 이상의 기회를 갖지 못할 것이라는 공포였다. 또한 드물기는 하지만 빠른 시간 안에 비교적 큰 낙차의 몰락을 경험한 사람들을 만나보았다. 빈곤은 문화적 소외를 유발시키는데 그래서 몰락하여 예전의 자신의 수준을 유지할 수 없게 된 사람들은 세습된 빈곤층보다 훨씬 더 절망에 빠지게 된다. 그 반대의 경우도 있었다. 빈곤의 문제에 집착하여 몇 년 동안이나 그것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과연 '공동체'라는 것은 진정 존재하는가, 라는 의문을 갖게 된다. 민족이나 국가 말이다. 공동체가 유지되고 있는 것은 단 한가지, 오직 외부의 위협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 이외의 이유에 대해서 공동체가 스스로 공동체라고 인정하고 자각한 경우는 없는 것처럼 보이니 말이다. 관리 한의 의견대로라면, 공동체를 하나로 구속하는 이데올로기를 위해서, 빈곤의 문제는 초공동체적 성격을 갖지 않아야 하는 것이다.", 배수아, 「일요일 스키야키 식당」, 문학과지성사, 2003, 261쪽.

따라서 이 시기 여성 작가들의 작품에서 싱글 라이프에 대한 선택과 결단 역시, 구체적인 삶의 형태로서가 아니라, 단지 '선언', '마니페스토'로서만 나타날 수 있었다. 싱글 라이프의 구체적 모습이 정치적 실천으로서 그 형태를 갖추기도 전에 싱글 라이프는 칙릿이라는 문화 상품에게 자리를 내주게 된다. 이는 단지 문화 산업의 영향력 때문은 아니다. 이러한 새로운 삶의 형태를 정치적 실천으로서 의미화 할 수 있는 대항담론의 기능이 미약했던 점 역시 연관된 문제라고 생각된다. 그런 점에서 페미니즘이 여성의 삶에 대한 해명의 무기로서, 담론적이고 이론적인 기능을 충족시켜주지 못한 것은 이 지점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라 생각된다. 특히 이는 이론적 실천을 담지해야 하는 학문장과 이론가들의 한계와도 무관하지 않다. 필자를 비롯하여 페미니즘의 이론적 실천이 제도와 자본의 역학 사이에서, 제도화와 무기력함의 사이에서 길을 잃어버린 것인지도 모른다.

이러한 맥락을 염두에 놓고 볼 때 공지영, 신경숙이 가족 관계의 신성함을 다시 확인하는 방식을 통해서든, 역으로 가부장적 질서의 폭력성을 폭로하는 형태로든, 한국 사회의 공통의 이해관계에 호소하는 소설을 통해 국민 작가의 반열에 오른 것과 대비해서 배수아의 행보는 흥미로운 차이를 보인다. 공지영은 □즐거운 나의 집□이 상징하듯이, 가부장적 가족과는 다르지만, 성공한 엄마의 한 아이콘이 되었다. 또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이나 □도가니□와 같이 한국 사회 구성원들이라면 '분개'하고 '공감'해야만 하는 공통의 관심사들을 취재하여 소설화하면서 성공한 대중작가이자 국민 작가가 되었다. 또 신경숙 역시 역사소설 □리진□과 □엄마를 부탁해□처럼 역사 소설과 가족 관계에 대한 향수라는 노스탤지어적 형식을 통해 국민작가가 되었다. 공지영과 신경숙은 모두 결단과 선택으로서 여성의 싱글 라이프에 대한 서사로부터 '가족과 엄마'라는 우회로를 통해, 성공한 국민 작가의 표지를 얻게 되었다. 또 이러한 경로는 공지영과 신경숙의 최근 소설들이 '익숙하고 가독성 높은' 일상 언어로서의 한국어를 기반으로 한 사실주의적 소설 문체로 회귀하고 익숙한 한국 문학 문법을 반복하는 점과도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신경숙의 『엄마를 부탁해』는 전형적인 한국형 가족 서사로, 대중의 심금을 울리며 기록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엄마를 부탁해』는 가족에 대한 한국인들의 이른바 일반적인 이해관계와 관심사를 한국인들이라면 거의 누구나 이해가능한 일반적인 언어로 표현하고 있다. 게다가 이 소설은 한국인들이라면 누구나 일반적으로 이해 가능한 기술 방식에 전적으로 기대어 기술되고 있는데다가 한국인에게 오래 내재된 정념인 상실한 자의 슬픔에 적극적으로 호소하고 있다.[22] 한편으로 공지영의 『도가니』는 사회적 약자에게 가해지는 성폭력을 고발하고 가부장적 권력을 응징하고자 하는 의도를 전혀 감추지 않는다. 『도가니』의 흥행 이후 분노가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기도 했다. 분노의 정념을 새로운 정치적 주체화의 기반으로 소환하는 경향은 몇 년간 한국 사회의 두드러진 특성이다. 소책자인 『분노하라』[23]는 촛불 집회를 이어 분노의 정치적 에너지에 대한 '교본'이 되었다. 바야흐로 한국 사회는 슬픔과 분노의 정념이 과연 어떤 정치적 주체화를 이룰 것인가를 시험하는 전환점을 맞고 있기도 하다. 물론 『도가니』의 대중적 성공은 영화를 통해 뒤늦게 이뤄졌다는 점에서는 『엄마를 부탁해』와는 차이가 있지만, 원작 소설 『도가니』자체에도 이러한 대중적 호소력 자체가 매우 강한 것이 사실이다. 즉 『도가니』는 1980년대 르뽀(reportage) 문학의 '고발정신'과 사실주의 문학의 계몽주의와 현실 재현 방식을 그대로 계승한 적자라 할 수 있다. 게다가 『엄마를 부탁해』와 마찬가지로 『도가니』역시 한국인에게 매우 익숙한 정념, 약자로서의 원한과 분노에 적극 호소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보자면 최근 이례적인 대중적 성공을 거둔 신경숙과 공지영의 소설은 양자 모두 한국인의 이른바 공통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쟁점을 소설화하고 있으며, 이른바 한국 사회 구성원의 공통의 정념에 호소하

22) 『엄마를 부탁해』의 대중적, 비평적 성공을 통해 본 한국 사회의 정치적인 것에 대한 심성구조의 변화에 대해서 나는 앞서 언급한 두 글에서 자세하게 다루었다. 이에 대해서는 「맨몸의 숭고와 비판적 삶의 종말」, 「죽음과 생존을 묻다」 참조.

23) 스테판 에셀, 임희근 옮김, 『분노하라』, 돌베개, 2011.

고, 이를 위해서 한국인이라면 일반적으로 이해 가능한 언어와 의미화 방식을 자연스럽게 채택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보인다. 게다가 「엄마를 부탁해」와 「도가니」는 모두 한국문학의 익숙한 전통인 사실주의와 계몽주의, 그리고 이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인민주의(populisme)를 근간으로 하고 있으며, 이른바 공통으로 이해 가능한 한국어의 체계를 따르고 있다.

이와 비교해볼 때 배수아의 「북쪽거실」이나 「올빼미의 없음」은 일단 표면적으로도 한국 사회 구성원들이 일반적으로 이해 가능한 한국어의 체계를 따르고 있지 않다. 오명이든 악명이든, 그녀의 문장은 점점 더 노골적인 번역 투를 취하고 있다. 물론 이른바 언어 파괴나 모국어 형식의 파괴를 지향하는 소설 문법이 배수아의 고유한 창안은 아니다. 박상륭에서 최근의 한유주에 이르기까지 그 계보 또한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 그러나 내가 여기서 배수아 소설의 번역 투 문장을 통해 논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소설사적 계보나 형식 실험에 관한 것이 아니다. 또한 나는 문학사적 맥락보다는 신경숙, 공지영, 배수아로 상징되는 여성 작가들의 과거와 현재, 그 출발점과 도착점을 논하고 싶다. 그리고 이 연장선에서 여성과 글쓰기, 혹은 여성들의 삶의 방식에 대한 서사화의 출발점들과 도착점들을 환기하고자 한다.

공지영이나 신경숙, 배수아의 작가적 출발이었던 결단과 정치적 실천으로서의 여성들의 싱글 라이프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하나의 정치적 실천으로서의 함의를 잃었을 뿐 아니라, 동시에 문학장이나 담론장의 공통된 관심 대상 영역으로부터 멀어져 버렸다. 여성들의 싱글 라이프는 한편으로는 과도하게 재현되고 있지만(칙릿소설처럼), 동시에 정치적 실천이나 결단으로서 싱글 라이프의 의미는 퇴색되어 버렸다. 아니, 배수아나 신경숙, 공지영과 같은 시대에 싱글 라이프를 선택했던 그녀들의 삶의 이야기는 이제, 어떤 재현 불가능한 영역에 배치되었다고 하는 편이 더 적절할 듯하다. 이제 정치적 실천이자, 결단이었던 (이 과거형의 의미가 중요한데) 그녀들의 싱글 라이프의 이야기는 더 이상 한국 사회 구성원들

의 공통의 관심사가 아니다. 배수아의 소설이 그러하듯이 그녀들의 이야기는 익숙하고 가독성 높은 한국어의 의미화 체계로는 표현되지 못하며 재현 불가능한 어떤 영역이 되었다. 아니 그 재현불가능성으로부터, 그녀들의 싱글 라이프의 어떤 도착점을 다시 사유할 필요가 우리 앞에 도래한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배수아의 최근 소설들은 흥미롭다.

> 반대로 말하자면, 우리를 가장 훌륭하게 꿈꾸게 하는 것은 다름아닌 통증이나 부자유일 것이므로 그것에 저항해야 할 이유가 없었으니까. 그리고 사실상 어느날 이후부터인가 나는 항상 내가 역사나 이야기의 외부인이자 기록되지 않는 바보광대라고 느꼈으므로. 그러나 설명하는 중에도 내 머릿속에서는 다른 기억들이 흘러갔는데, 어느날 약국 진열대에 전시된 화장품 중에서 무종강력수분크림이란 것을 발견한 적이 있고, 나는 두 손을 주머니에 넣은 채 빠른 걸음으로 길을 걸어가는 중이었는데, 그것을 본 순간 어떤 알려지지 않은 이유로 인하여 문득 걸음을 멈추게 되었고, 진열장에 가까이 다가가 튜브에 든 길쭉한 모양의 그것을 한참 들여다보았으며, 무종 회사가 사라진 지 오래인 지금도 그런 이름의 크림이 여전히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까지는 그날 듣지 못했으므로, 그 순간 복고풍의 곱슬머리의 모델이 천사처럼 미소짓고 있는 광고판 아래, 당신의 피부는 절대 피곤하게 보여서는 안 됩니다.라고 적힌 옛날의 문구는 마치 나를 역사박물관의 1950년대 방으로 데리고 온 것 같았다고, 그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던 것이리라. 그리고 나는 한 모형비행기 수집가와 함께 택시를 타고 강 위쪽 도로를 달려갔으나, 늘 그렇듯이 강물이 검은 기름의 눈동자를 번득이는 것은 철제 난간과 흉한 화단에 가려 보이지 않았다고. 택시를 타고 박물관에 도착한 모형비행기 수집가는 이미 어느정도 불안해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내가 택시에 올라타자마자 대뜸 무종의 탑으로 가는 길을 아느냐고 물었으나 나는 알지 못했다고.[24]

---

24) 배수아, 「무종」, 『올빼미의 없음』, 창비, 2010, 186쪽. (띄어쓰기는 원문을 따름)

집이라기보다는 임시 거처라는 표현이 어울리는 방들을 거쳐 가며, 가족이나 친구라기보다는 스쳐지나가는 우연한 만남들로 맺어진 관계만을 지닌 채, 마치 유령처럼 "부르주아의 도시"를 배회하는 어떤 존재들의 삶을 그려나가는 건 배수아가 '소설'을 통해 지속적으로 탐구해온 영역이자, 그녀 자신의 작가로서의 존재 양태가 되었다. 「북쪽거실」이나, 「올빼미의 없음」에 이르러 배수아의 '소설'은 소설이라는 재현의 문법으로 설명되기 어려운 지점으로 점차 이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인물들 역시 인물이라 할 만한 명확한 특성을 결여한 채, 점점 더 윤곽을 상실한 모호한 형태만을 지니게 되었다. 이들은 이제 존재라고 불리기도 유령이라 명하기도 어려운 방식으로 존재-유령의 경계 사이에서, 그러나 비존재화되거나, 타자화 되었다는 표현과는 다른 방식으로 배수아의 글 속에 살고 있다. 또 예의 '악명'이 높은 번역 투의 문장은 이제 그녀만의 특별한 언어가 되었다. 이제 아예 그녀는 번역가가 되지 않았던가? 배수아 그녀가 소설가에서 번역가로 존재 전이를 이루고 있는 것은, 여기서 다루는 어떤 존재들이 '모국'의 경계 안에서 생존하는 특별한 방식과도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녀의 소설은 독해가 불가능한 형식을 취하면서 언어의 감옥에 갇힌 '수용자'의 말, 혹은 꿈을 재현 불가능한 방식으로 탐색하고 있다. 「북쪽거실」은 수용소라는 장치를 통해서 언어의 감옥을 탐색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익숙한 공동체의 언어 기율과 요구를 수용소라는 형식을 통해 탐색하고 있다.

> 우리들의 어휘는 종종 혀의 습관에 불과한데, 그것은 사실의 옷을 입은 그 무엇을 더욱 힘 있는 사실처럼 느끼게 해줄 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사실의 역(逆)에 기여하기도 한다. 사실이 아닌 것처럼 말해져야 한다는 가공된 정당성의 반대-힘. 종종 어떤 편견과 무지가, 아무도 그것에 투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도리어 그렇기 때문에, 막강한 권력을 차지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처럼. (중략) 그러한 신념-습관적 어휘의 엔지니어들을

처형하라.[25]

□붉쪽거실□은 습관적 어휘의 수용소의 안과 밖을 넘나들며 "측정할 수 없는 고유한 어휘들의 온도"를 감지하고자 하는 고투의 과정을 꿈의 형식으로 탐색하고 있다. 이는 언어라는 수용소, 혹은 문학이라는 "습관적 어휘"의 수용소의 자발적인 수용자인 작가로서, 모국어의 경계를 넘을 수 없으면서, 그 바깥을 '번역'이라는 창을 통해서 훔쳐보는 번역가-작가, 소설가-에세이스트로서 배수아 자신의 주체 위치에 대한 탐색과도 연결된다. 배수아는 일련의 소설들을 통해서 한국 문학의 익숙한 문법들에 대해 담론 탐색적인 비판을 지속해왔다. 그녀의 소설이 비평가들의 '분류체계'에 들어가지 못한 채, 비평의 외곽에 잔여물처럼 남겨져 있는 상황은 이와 무관하지 않다.

즉 그녀의 소설은 한국문학사의 어떤 익숙한 문법과도 상이해서, 비평가들에게 적절한 분류의 대상으로 간주되지 못하고, 정체를 알 수 없는 '그 무엇'으로 남겨져 있다. 나는 이러한 그녀의 글쓰기 방식이 정치적인 것의 과거형과 미래형 사이 어딘가에서 길을 잃고 있는 존재들에 대한 탐색과도 관련 된다고 생각한다. 배수아 소설에서 전직 '투사'였던 '계몽주의적' 지식인 남성의 존재태는 정치적인 것의 과거형과 현재형 사이의 낙차를 보여주는 사례로 빈번히 등장한다. □일요일 스키야키 식당□의 백두연 같은 인물이 대표적이며, 「무종」의 모형비행기 수집가 역시 이 계열의 인물이다. 또한 여성들의 삶은 이러한 계몽주의적 지식인의 웅변과 장광설에 의해 규정당하거나 부인당해서 자기 분열을 반복하기도 한다. □올빼미의 없음□이나 □붉쪽 거실□은 이러한 자기분열을 거듭하는 언어, 부인당한 언어를 하나의 형식으로 옮겨 놓은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녀의 글쓰기를 '번역 투'의 문장이라고 매도하는 비평가들의 관행은 그런 점에서 참으로 흥미롭다. 번역 투의 문장이라 불리는 그녀의 문체는 번역 불

25) 배수아, □붉쪽거실□, 문학과지성사, 2009, 14쪽.

가능한 어떤 존재의 '언어' 혹은 번역 불가능한 존재로서의 그녀의 소설 속 거주자들의 삶의 방식에 상응하는 것이 아닐까.

번역 투라 불리는, 국적도 소속도 불분명한 배수아의 문체는 "이곳저곳으로 여행을 다니며 임시로 구한 셋방에서" 살아가는, "마치 꿈속에서 또다시 꿈을 꾸듯이, 여행지에서 다시 여행을 떠나온 마음"[26]에 가장 합당한 형식이라 할 것이다. 이 번역 투의 문장은 여행 속에서 또 여행을 떠나는 자의 문체이며, 집 대신 임시 거처만을 가진 자의 문체이며, 가족 대신 우연한 만남만을 가질 수 있는 어떤 존재의 형식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이 문체는 집을 갖고, 가족을 갖고, 집을 상속하고, 영구 거주를 꿈꾸는 자의 문체, 즉 영주권을 지닌 자의 언어, 혹은 '모국어'의 문체로는 번역될 수 없다. 그녀와 모형비행기 수집가가 끝내 서로의 말을 이해할 수 없듯이, 모형 비행기 수집가의 말이 끝내 외국인 운전사에게 번역되어 전달될 수 없듯이 말이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무종」에서 모형비행기 수집가라는 "교육받은 지식인의 흠잡을 데 없는 발음"으로 표명되는 것들은 분노의 정념과 택시 기사가 당연히 알아야 할 덕목과 직분, 즉 "적절함"에 대한 요청들이라는 점이다. 「무종」에서 모형비행기 수집가는 무종탑을 찾지 못하는 외국인 운전사에게 격노하며 분노를 표명하면서, 자신의 이러한 분노는 외국인 혐오가 아니라, 무종의 운전사라면 당연히 무종탑을 알아야 한다는 데 대한 정당한 요청이며, 운전사가 운전사로서의 적절한 직분을 수행하지 않는 무책임에 대한 정당한 분노라고 반복해서 발화한다. 이 대목은 매우 흥미롭다. 운전사로서 해야 할 적절한 임무를 강변하는 "교육받은 지식인의 흠잡을 데 없는 발음"은 소설가라면 소설가로서의 적절한 직분을 다해야 한다는, 어떤 당위적 요청으로도 이어지기 때문이다. 즉 독자에 대한 배려, 전달 가능한 한국어의 사용과 같은 요청 말이다. 반면 분노와 같은 정념이나, 걸맞음이나 직분과 같은 덕목들은 번역 투로만 표명되는 그녀의 발화로는 표명되지 못한다. 즉 번역 투의

26) 「무종」, 앞의 책, 173쪽.

문체는 직분과 걸맞음, 그리고 그에 반하는 양태에 대한 '정당한' 분노와 같은 차원으로는 재현 불가능한 어떤 존재의 위치에 상응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배수아의 최근 소설의 번역 투의 문체는 사실주의 문학이라는 한국 문학의 전통에 기반을 둔 의미화 경제로는 환원되지 않는 어떤 재현 불가능한 주체 위치와 관련을 지닌다.

4. 번역가능성과 번역불가능성 사이의 삶-죽음

우리 시대의 시인 최승자,[27] 그녀의 투병 소식을 전하는 기사들에는 공통적으로 대화불가능에 대한 답답함이 토로된다. 시인 최승자의 현재의 삶을 전하는 어떤 보고문의 구절은 이 시대 여성의 싱글 라이프에 대한 시선을 전형적으로 보여준다.

> —젊었을 때는 세상을 다 아는 것처럼 느꼈지만, 이제 50대 후반까지 살아보니 다르게 보이지는 않는가요?
>
> "**내가 본 세상**은 절망스럽고 허무한 것이었어요. 절망의 끝, 허무의 끝,

27) 최승자, 한국에서 글 쓰는 여성, 글쓰기를 '선망'해 본 여성들이라면, 그녀의 이름에 별다른 설명을 다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느낀다. 그녀야말로 글 쓰는 여성들에게, 모든 시인에게 "우리들의 시인"이라는 말 이상 다른 설명이 필요 없는 존재이다. 그러니 또 다른 "우리들의 시인" 진은영의 말이 그녀, 최승자에 대해 다음 세대 작가로서 우리들이 전할 수 있는 인사말의 한 형식이라 생각한다. "대학 시절, 성수동에서 이대 입구까지/다시 이대 입구에서 성수동까지/매일 전철을 타고 가며 그녀를 상상했었다./이 많은 사람들 사이, 만약 당신이 앉아 있다면/내가 찾아낼 수 있을까?/우리들의 시인 최승자에게", 진은영, 「시인의 말」, 『우리는 매일매일』 문학과지성사, 2008. 그녀의 투병 소식을 알리는 한 기사는 다음과 같이 그녀의 삶을 '보고'하고 있다. "그녀는 가족이 없었다. 서울의 세 평짜리 고시원과 여관방에서 밥 대신 소주로, 정신분열증으로, 불면의 시간으로, 죽음의 직전 단계까지 간 그녀를 찾아내 포항으로 데려온 이가 외삼촌이었다." 최보식 기자, 『조선일보』, 2010년 10월 22일자.

죽음의 끝까지 가봤던 셈이지요. 그 끝은 삶의 긍정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 무덤, 푸르고/ 푸르러져/ 푸르름 속에 함몰되어/ 아득히 그 흔적조차 없어졌을 때/ 그때 비로소/ 개울돌 늘 이쁜 물소리로 가득하고…'라고 썼어요. **내가 머문 세상이 아닌 다른 세상에서는** 아기가 방긋 웃기만 해도 즐겁고 이쁜 개울물이 흘러간다는 걸 알아요. **다른 사람들이 아름답게 살고 있다는 걸 나도 압니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살 수가**…."

(중략)

—선생은 경제적으로 무능력하고 병들어 있습니다. 다른 여성들처럼 가정을 꾸렸으면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없나요?

"전혀 없어요. **결혼해 가정을 꾸린 당신들이 잘사는 것을 알지만, 나는 그렇게 못해요.** 아이들을 바라보는 것은 좋아요. 하지만 그 아이들을 내가 직접 키우면서 사는 것은 싫어요. **이기적이라고요?** 그건 맞아요. 젊은 날 그런 제의가 있으면 먼저 내가 떠났어요. **나는 홀로였고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대신, 시장통을 한 바퀴 돌며 감자 고구마 고추 생선들을 구경하고, 가로수 길을 걷고, 이쁜 아이들을 쳐다보고, 간혹 버스를 타고서 산을 쳐다보는 것, 그걸로도 만족합니다."(강조 인용자)[28]

이 기사는 인터뷰의 형식을 취하지만 본질적으로는 기자의 보고로 윤색된 글(reported narrative[29])이다. 인터뷰에서 흥미로운 점은 기자의 '보고와 윤색'을 통해서도 줄어들지 않는 어떤 간극, 즉 기자의 질문과 최

28) 최보식-최승자 인터뷰, 앞의 글.

29) 지젝은 홀로코스트 생존자의 증언이나, 테러 이후 생존자의 증언 등 증언의 형식을 우리가 타인의 고통을 '전달받는' 진실의 언어라고 생각하지만, 실은 오히려 이러한 증언이야말로 보고된 말reported narrative이라는 점에서 폭력의 경험을 전달 가능한 형식으로 번역한 것일 뿐이라고 말한다. 그런 점에서 오히려 '시적인' 것이야말로 보고될 수 없는, 번역될 수 없는 고통의 경험에 상응하는 것이라고 논한다. Slavoj ˇZiˇzek, *Violence*, Picador: New York, 2008, 주디스 버틀러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수용소 수감자의 시를 논하고 있다. Judith Butler, "Survivability, Vulnerability, Affect", *Frames of war: When Is Life Grievable?*, VERS London·New York, 2009, pp33~63.

승자 시인의 대답 사이의 너무나 동떨어진 간극이다. 기자가 인터뷰를 마무리 하면서 '답답한 심경'을 토로하는 것은 단지 그녀의 건강 상태에 대한 근심 때문만은 아니다. 최승자 시인의 신병을 걱정하는 기자들의 보도에는 빠지지 않고, '대화불능'의 어려움이 토로된다. 그리고 그것은 손쉽게 그녀의 '정신병적 상태'의 문제로 환원된다. 그러나 위의 인터뷰에서도 보이듯이 기자의 질문과 최승자의 답변 사이에는 '정신건강'이라는 '문제'만이 놓여 있는 게 아니다. 기자의 질문은 결혼과 가족과, 정신 건강과, 적절함에 대한 이른바 한국사회 구성원의 통상적인 관심사나 일반적인 이해관계에 대한 논의로만 채워져 있다. 기자의 질문이 군더더기 없이 간단하고, 누구나 이해 가능한 형태의 질문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내용의 반영이다. 반면 최승자 시인의 대답은 "내가 본 세상은", "내가 머문 세상이 아닌 다른 세상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아름답게 살고 있다는 걸 나도 압니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살 수가…." 같은 표현을 반복하고 있다. 그녀의 말은 기자의 답에 대해 답할 수 없는 곤경을 표명하는 것이 아니다. 그녀는 기자의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세상을, '당신들의 세상'의 언어, '다른 사람들의 세상의 문법'으로 번역되지 않는 언어를 번역하려는 쓸모없는 노력을 되풀이 할 수밖에 없다는 곤혹감을 되풀이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 말은 전달되지 않는다. 그저 정신이 황폐해진 채 홀로 늙어가는 "어느 여인의 종말"[30]처럼 '보고'

30) 지금으로부터 꼭 30년 전이다. "허무의 사제", "절망의 골수분자" 최승자가 싱글 라이프의 미래를 암울한 초상으로 그려 보인 것도 말이다. "어느 빛 밝은 아침/잠실 독신자 아파트 방에/한 여자의 시체가 누워 있다."로 시작되는 최승자의 시 「어느 여인의 종말」은 어떤 정치적 실천, 혹은 선언(마니페스토)으로서의 싱글 라이프의 함의를 '부정적인 방식'으로 그려준 것이었다. 즉 시체가 되어 썩어문드러진 그녀의 육체는 싱글 라이프의 미래에 대한 가부장적 사회의 시선과 우려를 역설적으로 그려낸 것일 뿐, 싱글 라이프의 '도래할 미래'의 초상으로 제시된 것은 아니었다. 30년 전 "독신자 아파트 방에" "식은 몸뚱어리"로 누워있는 그녀의 몸은 싱글 라이프를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했던 그 시대에 하나의 선언, 혹은 결단의 함의를 지니는 것이었다. 최승자, 「어느 여인의 종말」, □이 時代의 사랑□, 문학과지성사, 1981, 32쪽.

될 뿐이다.

기자가 우리 시대의 시인 최승자에게 던지는 이런 질문들, 즉 "젊었을 때는 세상을 다 아는 것처럼 느꼈지만, 이제 50대 후반까지 살아보니 다르게 보이지는 않는가요?"라거나, 왜 "다른 여성들처럼 가정"을 꾸리지 않고 "무능력하고 병들어" 홀로 늙어 가냐는 질문은 이 시대 싱글 여성의 '어떤 종말'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아니 한때는 '잘 나가던' 싱글 여성들에 대한 이 시대의 시선이 이런 질문에 전형적으로 담겨 있다 할 것이다. 이러한 시선은 젊은 시절 열정과 허무의 화신이었던 최승자에게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시선은 특히 이른바 '지식과 성의 권력'을 '한때' 획득했던 여성들에게 가해지는 비난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물론 이 시선은 연민과 동정의 의미를 내포하기도 하지만, 이 연민과 동정은 외롭게 홀로 늙어가고 있는 싱글 여성들에 대해 자기 책임론에 가까운 비난과 그녀들의 삶의 방식에 대한 부정의 함의를 복합적으로 내포하고 있다.

한때는 지식과 성의 권력을 갖고 있었던, 싱글 여성들의 '종말'에 대한 이러한 복합적 시선의 전형적 패턴은 "맥도널드 할머니"라는 속칭으로 '구경거리'가 된 그녀, 권하자씨에 대한 이 시대의 담론에서도 확인된다. 나는 구경거리가 되면서까지도 누워서 편히 잠들기를 거부하는 그녀, 권하자의 도촬된 옆모습에서, 자신이 선택한 삶을 끝까지 유지하고자 하는, 그러나 어떤 언어로도 번역될 수 없는, 그런 의지가 아닌 의지, 말이 아닌 말을 들은 것도 같다. 패배하지 않기 위해, 패배자로 간주되지 않기 위해, 그리고 구호되지 않기 위해. 그녀들은 미치거나, 병들거나, 밤거리를 떠돌면서도, 그렇게 그녀들만의 세상을, 간신히 살아내고 있다. 그녀들의 삶-죽음이 과연 이해 가능한 '모국어'로 전달되거나 번역될 수 있을까? 그녀들의 삶은 모국어로 번역되는 순간, 그저 정신병자, 된장녀, 부르주아, 행려병자라는 위치 외에는 부여받지 못한다. 그러한 번역을 통해서 가까스로, 그녀들은 '보호'되거나 '구호'될 수 있겠지만 말이다. 모국어로 번역되지 않는 그녀들이 삶은 그러하니, 언제나 구호가 불가능한 채 방치될 수

밖에 없는 위험에 노출되는 것이다. 사정이 이러할 때 이해가능한 모국어로의 번역가능성과 번역불가능성이 그녀들의 싱글 라이프의 가능성과 불가능성의 경계에 다름 아니라 할 것이다.

5. 또 다른 페미니즘, 혹은 새로운 이론적 실천의 가능성을 꿈꾸며

여성들의 위태로운 싱글 라이프에 대한 탐구는 한국과 일본의 1세대 페미니스트들인 우에노 치즈코나 조한혜정의 최근 작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우에노 치즈코의 책은 한국어로는 『화려한 싱글, 돌아온 싱글, 언젠간 싱글』[31]이라는 제목으로 번역되기도 하였다. 우에노 치즈코는 이 책에서 결혼을 했든 안했든 여성의 미래는 싱글 라이프가 될 것이기에 "싱글도 준비가 필요하다"는 조언과 함께 자신의 싱글 라이프 경험을 전하고 있다. 조한혜정은 『다시 마을이다-위험사회에서 살아남기』[32]에서 가족을 넘어선 마을 공동체의 새로운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또 최근의 글에서 조한혜정은 버지니아 울프의 '나만의 방'에 대한 절규가 페미니즘과 여성의 새로운 삶에 대한 갈망의 상징이었지만, 이제 페미니즘은 나만의 방에서 나와 마을과 같은 공동체를 구축하는 길로 나아가야 함을 논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작업들은 조한혜정의 책의 부제가 전하듯이 "위험사회에서 살아남기"를 위한 조언으로서 매우 소중한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에노 치즈코의 싱글 라이프에 대한 조언은 어떤 점에서 '은퇴'를 준비할 수 있는 세대의 이야기라는 생각도 든다. 우에노 치즈코는 마흔 살이 넘으면 일을 줄이고 친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진심어린 조언을 주고 있지만, 과연 부정기적이고, 과도한 노동에 시달리며 친구를 만들 수 없

31) 우에노 치즈코, 나일등 옮김, 『화려한 싱글, 돌아온 싱글, 언젠간 싱글』, 이덴슬리벨, 2008.
32) 조한혜정, 『다시 마을이다』, 도서출판 또하나의문화, 2007.

는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한국의 30~40대 싱글 여성들에게 이러한 준비가 가능할까? 물론 이는 우에노 치즈코나 조한혜정의 작업의 한계를 논하고자 함은 아니다. 이들 1세대 페미니스트들의 싱글 라이프의 미래를 위한 조언과 실천은 여전히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조언과 실천은 그녀들이 걸어온 삶의 궤적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그런 맥락에서, 가족도 친구도 없이 임시 거처를 옮기며, 우연한 만남만을 관계로 지닌 채, 과도한 중노동에 자신을 혹사할 수밖에 없는 현재의 30~40대의 싱글 여성들에게는 그녀들의, 그녀들의 삶의 경험과 역사를 토대로 한 말과 조언이 필요한 시기라 할 것이다.

이 글의 초점이 글 쓰는 여성, 지식과 문화예술을 통해 자기 삶을 운영하는 특정 집단에 맞춰진 만큼 이와 관련한 논의로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학문장에서 페미니즘의 이론적, 학문적 실천은 그간 주로 학문장의 남성 중심적인 관습을 비판하고,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는데 집중되었다. 이를 통해 페미니즘 연구가 학문장에 어느 정도 자기 몫을 할당받은 것도 사실이지만, 실상 가부장적이고 남성 중심적인 학문장의 질서를 근원적으로 변화시키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견고하기 이를 데 없는 학문장의 질서 속에서 과연 페미니즘 연구자들의 이론적 실천의 작업이 어디까지 진행될 수 있을까? 페미니즘 연구의 재생산 자체가 불확실한 상태에 처한 것 또한 현실이다. 물론 학문장 내에서 페미니즘 연구 역시 하나의 권력이나 제도가 되어버린 측면 또한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기도 하다. 이러한 측면 역시 앞서 제기한 페미니즘의 이중의 역설과도 관련된다.

또 한편으로는 페미니즘이 그간 학문장의 기율과 관습을 비판하면서, 주로 연구 방법론에 대한 문제제기에 집중해온 것은 매우 타당하고 역사적으로 불가피한 일이기도 했다. 그러나 동시에 여성 연구자들의 존재 방식과 위치에 대한 탐구나, 여성 연구자들 스스로 자신의 삶의 문제를 이론화하고 의제화 하는 방식에는 이르지 못한 한계를 노정해왔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는 특히 문학 연구나, 역사 연구 등 특정한 학문 분야의 연

구 관행과 규약에서 비롯된 문제이기도 하다. 학문장이나 문학장에서 여성의 존재 방식, 특히 정치적 주체화의 '역사'를 뒤로 한 채 불안한 미래와 더 불안한 현재를 가까스로 견디며 겨우 생존하고 있는 모든 '여성' 연구자들의 삶의 문제를 다 함께 공동의 의제로서 나눠야 할 시간이 도래한 것이 아닐까. 그렇게 서로의 안부를 묻는 말들을 통해 가까스로, 이전과는 다른, 페미니즘의 실천, 그 불가능한 말은 시작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이제, 그 불가능한 말은 막 시작되었을 뿐이다.

참고문헌

권명아, 「죽음과 생존을 묻다: 애도, 우정, 공동체」,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자의 죽음: 용산에서 노무현 그리고 김대중까지 죽음과 기억의 정치학』, 당비의생각3, 산책자, 2009.

권명아, 「맨몸의 숭고와 비판적 삶의 종말」, 『작가세계』, 2009년 가을호.

권명아, 「파시즘의 해방의 정치의 딜레마」, 『문화과학』, 2009년 여름호.

권명아, "Coloniality, obscenity and Zola", AIZEN, Annual international conference, 2011년 10월 부산대학교 발표문.

배수아, 『일요일 스키야키 식당』, 문학과지성사, 2003.

배수아, 『북쪽거실』, 문학과지성사, 2009.

배수아, 『올빼미의 없음』, 창비, 2010.

벨 훅스, 『경계 넘기를 가르치기』, 윤은진 옮김, 모티브 북, 2008.

우에노 치즈코, 나일등 옮김, 『화려한 싱글, 돌아온 싱글, 언젠간 싱글』, 이덴슬리벨, 2007.

조한혜정, 『다시 마을이다』, 도서출판 또하나의문화, 2007.

주디스 버틀러, 『젠더트러블』, 조현준 옮김, 문학동네, 2008.

진은영, 『우리는 매일매일』, 문학과지성사, 2008.

최승자, 『이 時代의 사랑』, 문학과지성사, 1981.

최영미, □서른, 잔치는 끝났다□ 창작과비평사, 1994.

Jacques Derrida, “Language is never owned”, Sovereignties in Question: The Poetics of Paul Celan, Fordham University Press, New York, 2005, pp.99~101.

Judith Butler, “Survivability, Vulnerability, Affect”, Frames of war: When Is Life Grievable?, VERSO: London·New York, 2009, pp.33~63.

Abstract

Im/possible single life

-Life and death between the translatability and untranslatability-

Kwon, Myoung-a

There are beings who vanish in cold rooms alone without a protective layer from family or partners. They vanish not only from private life but from public spheres of career and work. Previous literature has focused on diverse socio-structural factors that make survival impossible including financial crisis, unstable employment, decreasing social welfare, the advent of Neo-fascism, etc. This paper explores the boundary of survivability and the origin and current situation of single life from the viewpoint of gender, especially focusing on the im/possible single life of women writers. The term 'single life' refers to lifestyle but also conveys 'singularity' of subject position and the nature of the existence of female writers as translator-poets (by Jacques Derrida). While paying attention to the single life of women from the late 1980s to now, I investigate how to theorize the political implications involved in women's choice and resolution of their lifestyles and power.

In this investigation, I keep in mind also the attitudinal change over feminism in Korea. Just 20 years ago, many Korean scholars had a strong interest in gender issues and they argued, "We need more feminism!" However, nowadays, feminism is no longer the center of attention. This is the case not only in scholarly fields but

also in mass media and the public sphere. The dominant perspective on feminism among ordinary people is "We've had enough!" or "No more feminism!" Yet the question "Who does 'we' refer to in that sentence" challenges that perspective. The more critical issue to handle is from where the attitudinal change over feminism originates, especially regarding power, political position, and the representation of womanhood.

Key words : single life, singularity, the translater-poet, translatability, untranslatability survivability

■ 본 논문은 10월 31일에 접수되어 11월 8일부터 20일까지 소정의 심사를 거쳐 11월 26일에 게재 확정되었음.